



유통업계
두쫘쿤 열풍에
원재료 확보 치열
L1

metro®

Life

화장품 제조사
색조 정조준
글로벌 공략
L2



내부결속 다지고, 원료 확보... 지주사 체질 바꾼 '구조전환'

CEO 왁칭

송 호 준

에코프로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2023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사장)로 선임된 이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룹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냈다. 순수 지주사에 머물던 에코프로를 별도 사업을 통해 실적을 창출하는 사업 지주사로 전환시키며 그룹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조직 개선에도 적극 나서 컴플라이언스실, 안전환경실, AI혁신실을 잇달아 신설하며 지주사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환경 속에서 원료 경쟁력과 내부 관리 체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 전환
잇달은 부서신설 등 적극적 조직개선

임기 초반, 위기에도 책임경영 강조해
내부소통 통해 구조·운영시스템 점검
투명 경영·중장기 전략으로 신뢰도▲

◆소통 중시...책임경영으로 조직 결속 다져

송호준 대표는 활발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직원과의 소통도 중시,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임기 초반부터 위기 국면에서 단기 실적 대응보다는 내부 결속과 운영 안정을 두면서도 책임경영을 강조해 왔다.

임직원 대상 설명회와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와 그룹 전략을 공유했다. 경영 현안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다. 오너 리스크와 실적 변동성이 동시에 부각된 시기에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경영 체제 유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단기 대응보다는 사업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기 관리에 나섰다.

삼성SDI 출신으로 전략·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송 대표는 구조와 실행력을 중시하는 실무형 경영자로 분류된다. 배터리 소재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에코프로

약력

1965년 3월 출생

19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년 12월 삼성물산 입사

1998년 12월 IBM 비즈니스컨설팅

2000년 3월 액센츄어 파트너

2011년 12월 삼성SDI 기획팀장

2022년 12월 에코프로 대표이사(사장)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효율성을 점검하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경영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으며, 경영진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가속...제련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에코프로의 사업 지주사 전환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 본격화됐다. 에코프로는 2022년 이동채 창업주의 구상 아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에 나섰다. 그룹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제련소 4곳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며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섬 IMIP(모로왈리 산업단지) 내 QMB(지분 9%), 메이밍(9%), ESG(10%), 그린에코니켈(38%) 등 4개 제련소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니켈 MHP는 약 2만 8500톤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한다.

지주사는 이들 가운데 QMB와 메이밍에 단독 투자했고, ESG 제련소, 그린에코니켈에는 계열사와 공동 투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송 대표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장기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밸류체인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니켈 제련을 통해 확보한 MHP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에코프로는 별도 기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순수 지주사' 탈피...사업 지주사로 전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에코프로의 별도 기준 매출에서 니켈 MHP 판매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2025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685억원으로, 이 가운데 무역 사업이 1262억원을 차지하며 75%에 달했다.

지주사가 자체 사업을 통해 실적을 창출하면서 에코프로는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로 전환했다. 계열사 배당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원료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이차전지 제조를 넘어 제련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료 내재화와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에코프로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서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니 제련소 4곳에 투자... 니켈 확보
원료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

AI 전문가 전면배치, 생산성 혁신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안정성 제고

◆지주사 컨트롤타워 강화...컴플라이언스·안전·AI 전면 배치

송 대표 취임 이후 에코프로 지주사의 내부 기능도 빠르게 고도화됐다. 2023년부터 컴플라이언스실, 안전환경실, AI혁신실이 차례로 신설됐다.

컴플라이언스실은 준법경영과 임직원 행동지침, 계열사 내부통제 이슈를 총괄한다. 법규와 규정, 시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안전환경실은 그룹 내 제조 현장의 안전과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작업 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AI혁신실은 기존 디지털 전환(DT) 기능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AI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그룹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통해 AI 도입 부서 비율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품질 부문에서는 생산 운영 고도화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 30% 향상을 추진 중이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연구 설계 최적화와 실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송 대표 취임 이후 에코프로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2024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잇달아 지정되며 대기업집단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에 지주사의 관리·전략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평가도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순수 지주사에서 후자를 내는 사업 지주사로 전환한 데 이어 지주사 본연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지주사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에코프로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제련소의 모습.

메트로 한줄뉴스



▲김해FC, 2026시즌 강준모·명세진·김경수·이민영 등 9명 영입
▲부천FC, 수비수 김원준과 2년 재계약 후 3부팀 임대
/사진 뉴스시스

▲KIA, 전지훈련 앞두고 통렬한 반성...“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SSG, ‘메디컬 테스트 문제’ 버하겐과 계약 해지...새 외인 베니지아노 영입

▲안우진 연봉 4억8000만원...키움, 2026시즌 연봉 협상 완료
▲MLB 애틀랜타, 김하성 ‘부상 공백’에 FA 마테오와 계약